

기업 사회공헌 ⑤

포천우체국 한사랑회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 찾아 남몰래 봉사 20년

어렵고 힘든 우편업무에도 웃음꽃 피울 수 있도록 노력



국장 서영호

포천우체국(국장 서영호)은 사회봉사활동 조직으로 한사랑회를 만들어 20여년째 사회봉사활동을 남몰래 실시해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정규직 119명이 매월 2~3천원씩 기탁하여 마련한 25만원의 기금으로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월 1천원씩을 모아 서울체신청에 보내주면 서울체신청에서 25만원을 후원지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월 생활비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포천우체국에서는 매월 50만원을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 일에는 전 직원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것 중 10만원을 매월 어린이보호시설인 노아의 집에 전달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5~6명의 직원이 참가해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노아의 집에는 장애를

안고 있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다.

또 매년 두 차례씩 포천우체국 30~40명의 여직원들이 노안의 집을 방문해 어린이를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빨래와 청소도 실시하는 등 봉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체신청 다사랑회는 직원 급여에서 1천원씩을 모아 전달하면 25만원으로 매월 영복면 운전전에 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매칭그랜트로 서울체신청에서 10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포천우체국 한사랑회는 추석과 설 명절에는 직원가운데 어려운 사람 3~4명 선정해 20kg 쌀 2포대씩을 전달하기도 해 직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성을 전할 함으로써 직원상호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또한 한사랑회는 포천시 어룡동에 위치한 호스피스 우리집을 설립 추진명절에 방문해 위문품

을 전달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하기 위해 이곳에 온 말기암 환자에게 말벗도 해주고 생활용품도 전달하고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위로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1일자로 부임해 사회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주(사진) 우편물류과장은 "직원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평소 자신이 가장 힘들게 살아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가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보면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우체국 서영호(사진) 국장은 "국민의 사랑 우정서비스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도 배달함으로써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천우체국은 1905년8월 10일 포천임시우편소로 개소해 1920년3월16일 포천우체국으로 개칭했으며 1971년12월15일 사무관국으로 승격되었고 1994년9월1일 청사개축이전, 2001년5월1일

직제변경에 따라 영업과, 우편물류과, 마케팅지원실로 개편했고, 2003년7월10일 직제변경에 따라 마케팅지원실을 경영지도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현재는 국장, 경영지도실, 영업과, 우편물류과, 6급국, 별정국, 취급소 등으로 나뉘며 영업과와 협관리사팀, 제103군사우편출장소, 제117군사우편출장소, 제118군사우편출장소, 우편물류과는 집배실, 특수발착실, 인사 및 세출, 6급국으로 포천송우, 포천영복, 포천일동, 포천가산, 포천내촌, 포천관인, 제105군사, 별정국은 포천관내, 포천신북,포천창수, 포천영중, 포천일동, 취급소로 포천선단, 대진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천우체국은 국내우편, 국제우편, 우체국택배등 우편업무와 예금상품, 보험상품, 우편대체, 우편환 등 예금보험업무를 하고 있다.

서영호 포천우체국장은 우체국 업무와 관련해 "포천우체국 전 직원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우체국, 지역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우체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박달재 생고기 마을

한우·흑돼지 고기를 정육점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곳



대표 석삼준

박달재 생고기마을(포천시 내촌면 내리 152-8 번지 대표 석삼준)은 한우/육우·흑돼지를 취급하고 있는 정육점과 소고기 국밥·도토리 목재·생돼지 김치찌개 등을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공하고 있는 음식점으로 많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인즉 고객들에게 질 좋은 양질의 고기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A+ 일등급 한우 고기를 취급하고 있으며 음향리에 위치한 농장에서 방목 형태로 직접 사육한 흑돼지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고기 맛을 본 고객들은 다음에 꼭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처며 지난해 위 곳에 정착해 생고기 전문점을 열게 되었다.

박 대표는 "한우 고기는 등급이 제일 중요하다. 국내 최우수 한우 고기는 A++등급이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 일등급도 우수하며 질 좋은 고기임을 틀림없다. 저희 업소를 방문해 고기 맛을 보신 고객은 이 근처에 오시면 꼭 들릴 정도로"며 "앞으로도 찾아 주는 고객들을 위해 초지일관 정확한 양과 양질의 고기만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정육점 가격을 자랑하는 박달재 생고기마을은 한우 생등심(600g): 3만 9천원, 차돌배이(600g): 4만 8천원, 육회(600g): 3만 9천원, 소불고기(600g): 2만 3천원 등을 일등급 A+ 한우로 고객들에게 정직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토종 흑돼지는 갈매기살(특수 부위 600g: 1만 1천원), 토종 흑돼지 모듬(600g): 9천원을 받고 있으며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야채나 밑반찬 가격을 성인 1인 기준으로 3천원을 받고 있으며 무제한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구이에 사용되는 솥은 참나무 솥을 이용하고 있다.

일반 식사 메뉴로는 도토리 목재(6천원)가 있다. 박달재에서 생산 된 도토리 전분을 이용해 직접 수취서 만들기 때문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발미 식으로 고객들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인기가.

특매기 불고기(6천원), 생돼지 김치찌개(5천원), 냉면(5천원) 등이며 겨울철 메뉴로는 소고

일등급(A+) 한우 고기만을 고집

겨울철 소고기국밥 건강식 최고

여기에 카페 식 분위기와 깔끔한 실내가 모든 고객들이 찾아오기에 부담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각종 단체회식이나 가족 모임, 연인들이 마을 편한 대화와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오픈 한 박달재 생고기마을은 마장동 도축장 모든 분야에서 약 15년 동안 생활해온 석 대표의 고기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밑거름으로 창업하게 되었다.

고향인 박달재 부근이라 석 대표는 상호를 박달재로 정했다고 한다. 확장시킬 러비를 8년 정도 해온 스포츠맨이기도 하지만 운동을 접고 곧 바로 마장동 도축장에서 생활하며 IMF 등을

기 국밥(6천원)이 있다. 소고기 국밥은 돼지 뼈 등을 푹 고은 육수를 이용해 맛이 단백하며 겨울철 고객들이 즐겨 찾는 메뉴다.

베어스타운과 내촌 참 숯가마, 골짜강, 광릉수목원 등 주변에 명소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박달재 생고기 마을은 겨울철에는 인근 지역 관광객들로 인해 줄을 설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박달재 생고기 마을은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있으며 찾는 고객들에게 언제나 정직한과 양질의 고기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문의 예약 T. 031)532-721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한우/육우·흑돼지를 취급하고 있는 정육점과 소고기 국밥·도토리 목재·생돼지 김치찌개 등을 고객들에게 정성을 다해 제공하고 있는 음식점

행복한 보험이야기 11

보장성 있는 상품 선택해야

얼마 전 '편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의 내용도 주인공의 연기도 뛰어난 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투자의 성향도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단기보다는 장기로 혼자만의 결정에서 재정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식이다.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에서 간접투자인 펀드로 많이 바뀌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금융조사에 따르면 PB고객이 꼽은 자산중식 수단으로 2002년에는 예·적금과 부동산이 각각 47%, 43%를 차지했으나 올 6월에는 32.1%와 31.5%로 크게 줄었다. 대신 펀드가 1.8%에서 18.9%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투자 성향이 바뀌고 있는 것은 금융자산 증가로 전문적인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규율과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는

데다 고령화로 적극적인 은퇴설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저금리는 계속되고 온갖 채테크 수단이 소개되고 있는 지금 부자이든 아니든 오늘날 채테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수단이 되었다.

투자할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투자가 남의 이야기로 들린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남의 세상 이야기로 들리거나, 본인에게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종자돈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적금이나 펀드로 종자돈 없이 조금씩 모아나갈 때에는 돈이 늘어나는 것도 보이지 않고 별 효과도 없어 보이기 쉬우므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해약해서 써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돈이 부자가 되는 너무나도 확실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쉽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종자돈을 만들기 위해 매월 적립하는 돈은 아예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또한 2, 3년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한 매월 소액이라도 좋으니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할 수 있는 지구력과 꾸준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막상 돈이 모여도 투자의 실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투자 능력이다. 즉,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부타입이 생기고 이는 조급한 의사 결정을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어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바로 무관심 가입자라고 할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하나하나도 하나씩 해이리라고 막연히 시작하는 사람들은 결국 해약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관심 가입자

는 적절한 상품이냐 금리에 관심이 없거나 금융기관에서 권유한 대로 가입하거나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일임하는 경우인데, 단순히 열심히 불입만하면 종자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대체로 종자돈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목적이 분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에게 맞는 종자돈 마련 상품은 먼저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 많은 적립식 상품들 중에는 소득공제, 비과세 등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는 투자의 시대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장성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십시오!



이미정 금융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 지방 :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효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자 : 효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효적등본 및 법원판결본(실

종선고) 원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 상담팀 ☎ 국민 없이 1332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 ☎ 02-2100-3894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과 8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블로우 (BLOW) 성형기 하부 금형 사이에 협착

▶재해발생개요

○ 0000년 2월 2일 17시경 충청남도 소재 플라스틱제품 제조 작업장에서 피재자가 동료 근로자와 함께 블로우 성형기 시운전 중 금형이 송출 유압 실린더 연결부에서 오일이 누유되어 성형기 내부의 금형사이에서 확인하던 중 유압 실린더가 불시에 임의 작동하여 금형사이에서 확인하던 중 유압 실린더가 불시에 임의 작동하여 금형 사이에 협착, 사망한 재해임.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수리·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장치 조치 미실시

○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시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여 운전중 정지하고 수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기계기구의 수리·점검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



하여 기계가 불시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 후 작업을 실시한다.

나. 블로우 성형기 게이트 가드 연동장치 작동 확인 철저

○ 기계기구의 작동에 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게이트 가드를 기계기구의 작동과 연동구조로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 등의 관리감독 및 확인 철저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연금보험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

다음달 10일까지 ... 공휴일은 다음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물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상실일의 전일이 속한 달까지 내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부터는 자격을 취득한 날의 다음달부터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취득일과 상실일이 같은 달에 속해있을 경우는 상실 시점에 있던 기관(종별)에서 낸다.

유의할 점은 그 달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 상실지만 반영하고 16일~말일 사이 변동되는 다음달 고지 시 반영된다는 것. 예를 들면 4월 20일 입사자를 4월 25일에 취득신고 하면 5월분 고지시(납기일은 6월 10일) 4~5월분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는 식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입사자와 퇴사자 상황에 맞게 연금보험료를 공제해 납부에 대비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입고지서는 늦어도

매월 말일까지 모든 사업장과 개인에게 송부된다. 매월 5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이며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미납시는 연체금이 최초 3%부터 가산된다. 가입자가 연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매달 230원씩 보험료가 감액된다. 자중이체는 공단이나 본인의 거래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02년 7월 1일부터 주요 금융기관이 토요일 휴무를 시행함에 따라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해 업무를 처리한다. 납기 마감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일부금융기관에서 토요일에 연금보험료 등을 수납하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합산처리하고 수납 일자도 다음 영업일로 수록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 031-544-8700